# 4일간 행적 아리송…제2 피해자 우려

## '독극물 콜라' 피의자 이해못할 '묵비권'

## 2일밤~5일 행방추적 수사력 집중

## 타인명의 통장 발견…공범 있을 수도

'코카콜라 독극물 주입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서부경찰이 피의자 박모(41·여)씨의 행적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 2일밤부터 5일까지 행적이 아리송해 이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행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들고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닌 점 ▲피의자의 짐 속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가운데 박씨가 7일과 8일 대인동 모텔에 투숙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언론보도를 검색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박씨는 PC가 설치된 방을 요구해 '독극물 협박'에 대해 검색하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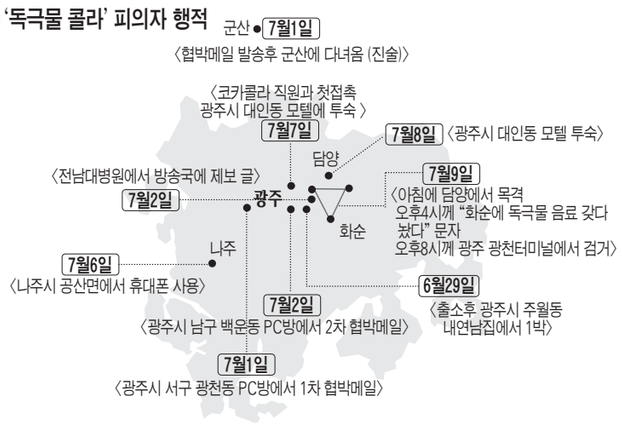
◇2일부터 4일간 뭘했나=박씨는 지난달 29일 출소한 첫 날을 광주시 남구 월산동 내연남의 집에서 보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PC방에서 처음으로 협박 이메일을 보낸 시간은 1일 낮 12시18분. 출소한 지 만 이틀이 채 안돼 범행을 시작한 것이다.

회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2일 새벽 0시34분에는 광주시 남구 백운동 모 PC방에서 다시 한번 메일을 발송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에는 전남대병원 로비에 있는 PC를 이용해 모 방송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장면이 병원 CC-TV에 잡혔다. 이후 박씨는 잠행하다, 6일 나주 공산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무슨 목적이었든 이 곳을 방문했다는 증거다.

박씨는 7일 오전 10시31분 "할 말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며 모 언론사 간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협박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회사 측과 범인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접선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75통의 문자메시지가 오갔고, 범인은 9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터미널 벤치에서 검거됐다. 검거 이후 박씨가 1일 군산, 6일 나주 공산, 7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8일께 담양에 머무른 사실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2~5일 사이의 행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 '독극물 콜라' 피의자 행적




◇공범 있나=광천동과 백운동 PC방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병원 CCTV 화면에서도, 투숙한 모텔 직원의 진술에서도 박씨는 혼자였다. 자신 소유의 싼타페 차량은 이번 범행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거운 짐가방 2개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연남과의 통화는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협박메일을 보내놓고도 12시간 사이 군산~광주를 오가는가 하면, 8~9일 광주~화순~담양을 오가며 '독극물 콜라'를 혼자서 놓고 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 박씨의 짐 속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통장이 발견된 점도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

◇묵묵부답, 왜?=범인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고, 추가 범행과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음식을 거부하다 검거 이틀째인 11일 밤에야 식사를 했다. 박씨는 지난 4월 남부경찰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10일간 단식과 폭식, 구토를 반복하며 수사진의 애를 먹였다.

경찰은 박씨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ID를 도용하고,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끄는 등 전형적인 지능범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공범이 도망갈 여유를 주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나주·군산에도 들러 범행 가능지역 늘어

## 3만여병 추가 리콜

'코카콜라 독극물 주입 사건'의 피의자 박모(여·40)씨가 나주와 군산에도 들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범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늘어나, '한국 코카콜라보틀링(주)'이 PET병 수거와 처리, 보상 등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코카콜라 측은 12일 나주와 군산 일대 매장 140여곳에서 3만여병의 PET병을 추가 수거했다고 밝혔다.

코카콜라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직원 300여명과 트럭 100여대를 동원, 담양·화순군 도·소매점 4천여곳에서 80만여병을 수거하고 있다. 하지만 수거율은 11일 밤 기준으로 2천여곳 40만여병(53%)에 불과하다.

수거된 콜라는 모두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공장으로 운반됐으며, 수거가 끝나는 다음주부터는 정밀검사한 뒤 폐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카콜라 측은 검사 결과 독극물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제품은 모두 경찰에 넘기고, 그렇지 않은 제품의 음료는 공장의 폐수처리장에 방류할 계획이다.

코카콜라 측은 이미 6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거 제품의 폐기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카콜라 측은 또 '독극물 콜라'를 마시고 천안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이모(25)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소변검사 결과 독극물을 치사량(5cc)보다 훨씬 많은 30cc 가량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폐와 췌장 등이 일부 손상돼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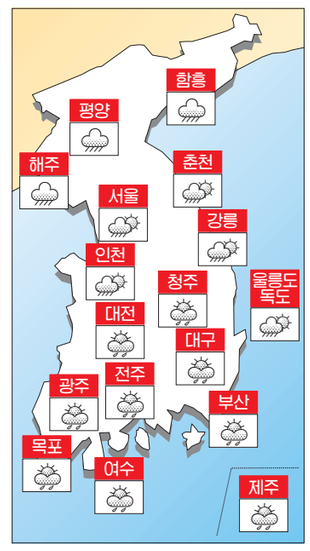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낮엔 '후텁지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7월 13일 (음 6월 18일) ◇전국날씨

| | | |
|---|---|---|
| 광 주 | 구름 많고 소나기 | 24~31℃ |
| 목 포 | 구름 많고 소나기 | 23~30℃ |
| 여 수 | 구름 많고 소나기 | 23~26℃ |
| 완 도 | 구름 많고 소나기 | 23~29℃ |
| 구 례 | 구름 많고 소나기 | 23~32℃ |
| 해 남 | 구름 많고 소나기 | 22~31℃ |
| 장 흥 | 구름 많고 소나기 | 22~31℃ |
| 고 흥 | 구름 많고 소나기 | 23~27℃ |
| 순 천 | 구름 많고 소나기 | 23~32℃ |
| 영 광 | 구름 많고 소나기 | 23~31℃ |
| 진 도 | 구름 많고 소나기 | 24~30℃ |
| 전 주 | 구름 많고 소나기 | 25~32℃ |
| 남 원 | 구름 많고 소나기 | 24~32℃ |
| 정 읍 | 구름 많고 소나기 | 24~32℃ |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4.0m

목포 밀물 03:55 15:51 썰물 09:08 21:07
여수 밀물 10:33 23:12 썰물 04:37 16:31

▲해뜸 05:28 ▲해짐 19:48 ▲달뜸 21:44 ▲달짐 07:2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14(금) | 15(토) | 16(일) | 17(월) | 18(화) | 19(수)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3/29 | 23/27 | 23/26 | 23/28 | 22/30 | 23/30 |

# 전남 태풍피해 130억원

## 컨테이너 83개 못찾아 선박 충돌위험 여전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휩쓸고 간 전남지역의 재산피해액이 13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전남도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액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130억1천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32억2천700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가장 컸으며 순천이 28억4천900만 원, 광양이 19억7천900만 원, 고흥이 18억3천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69개소 21억8천만 원, 하천 223개소 53억6천만 원, 수리시설 26개소 4억9천만 원, 임도 11개소 9억400만 원 등 모두 124억4천200여만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물 74개 동과 선박 3척도 전파 또는 반파됐으며 농경지 1.04ha, 농작물 41.11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 비닐하우스와 가축 등 2억3천900여만원 재산피해만 접수된 상태여서 최종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이날 하루 동안 공무원과 군인, 주민 등 895명의 인원과 굴착기, 덤프트럭 등 장비 193대를 동원해 유실된 도로와 하천 둑, 어항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에 나섰다.

한편, 태풍 '에위니아'의 거센 바람으로 인해 바다로 추락한 컨테이너 수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박 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해상에서 대만과 싱가포르 컨테이너 전용선에서 추락한 컨테이너 111개는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7개만 수거됐다.

해경은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 바지선 등을 동원, 해상에서 발견된 28개의 컨테이너 중 현재까지 바다에 남아있는 21개의 컨테이너를 수거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무게가 30~50t에 이르고 기상상태가 고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거된 컨테이너는 남면 우학리 인근 해안가로 인양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되지 못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구멍이 뚫려 모두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발견된 컨테이너를 인양하고 수거하는 일이 시급한 만큼 선주 측에 인양업체 선정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5월영령 恨 의미있는 미래되게 할 것"

## ■ 전수안 대법관 본보 전화 인터뷰

## 진보든 보수든 일방적 기대 기꺼이 배반

## 국민 갈구하는 정의 발견에만 전념할 터

"광주 5월 영령들의 한(恨)이 의미 있는 미래의 역사가 되도록 법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전수안 대법관은 12일 광주일보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법관 취임사에서 광주의 5·18을 언급한 것은 80년 5월,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군부독재를 상대로 당당히 저항했던 5월 영령들을 떠올리며 저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법관이 되겠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법관은 이어 "대법관으로의 부름을 받고 직전 근무지인 광주를 떠나오면서 광주 5·18 묘역에 머물러 있는 137인의 풀지 못한 한(恨)이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의미있는 미래의 역사가 되도록 법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광주를 한 번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법관 생활을 하는 과정에 광주의 5월 정신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서 "광주에서 살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가슴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 임하는 법관으로서는 불편부당하다는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되므로, 본인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른바 보수단체나 진보단체의 편파적 신뢰나 일방적 기대를 망설임 없이 털어버리고 기꺼이 배반하면서, 오직 국민들이 갈구하는 정의의 발견과 선언에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정교한 합격커리큘럼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교 우위의 최고 강사진이 전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곽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 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역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여야 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곽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마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강치욱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셨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생생한 학원강의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수강가능!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곽내영 / 유아교육 임미선 / 미술 김성희
국어 최병해팀 / 영어 송옥 / 수학 임대성
체육 김용호팀 / 공통과학 장영민팀 / 일반사회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2007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여름방학 문제풀이 대 특강
2006년 임용고시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교수진!!
교육학 유길준 교수(직강) 개강 7월 9일(일) 10:00~19: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7월 8일(토) 10:00~18:00
영어 이현 교수(직강) 개강 7월 6일(화) 10:00~17:00
과학교육론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7월 8일(토) 13:00~19:00
간호학 신희원 교수(직강) 개강 7월 7일(금) 10:00~17: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7월 4일(화) 15:00~21: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7월 8일(토) 13:00~19:00
선생님을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현대교원임용고시학원
www.hgosi.net
전남여고 앞 222-6790

여름방학 대특강
2차개강 7월10일
주간/야간반 운영
마감임박
인터넷 모의고사 무료
본인 성적 확인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재
공무원시험 새로운 무등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수많은 공무원이 무등출신입니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수석 본·원·출·신 송은영님 평균 96.7
7월 3일 첫진도 시작반
!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합격률 1위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청 앞 전일빌딩 뒤 / 지하철 도청역 6번출구

hanbitgosi.co.kr
"10월 1일 선관위" "9월 24일 선관위" 시험대비
7·9급 문제풀이반 개강
1차 : 8월 1일 마감임박
2차 : 9월 1일 예약필수
7·9급 공무원 이론반 - 짝수반/홀수반 때월 첫진도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전남대 후문앞 (서울고시학원 바로 앞) ☎234-0234